

安國善의 生涯와 作品世界

權 寧 珉*

1

開港 이후 近代化의 趨동은 폐쇄적이었던 朝鮮社會에 서구문화의 지배적인 影響력을 크게 확대시켜 놓았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것이 사회 各층에 수용되어 進歩的인 方向으로 정착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開化'와 '斥邪'의 대립이 과도하게 고양되자, 新舊勢力의 심각한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되었고, 몇몇 선각자들은 開化에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었으며, 민족 내부에서는 피이한 분열상태마저 조장되기도 하였다. 결국 조선 사회 전반에 걸친 고조된 긴장과 불안 속에서 열강 제국들이 경쟁적으로 벌였던 政略的인 드라마의 위태로운 균형이 깨어지자, 開化運動은 일제의 식민지라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고 말았다.

이러한 韓末의 역사적 상황을 新文學의 成立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려 할 경우, 文學精神 내지는 文學作品 자체에 있어서의 韓國文學의 近代化가 드러나고 있는 時差는 극복되기 어려운 문제로 등장한다. 우선 開化라는 명분 아래 놓여 있었던 당시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이 모든 분야에서 아직 近代的 成長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文學的 基盤의 미성숙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그리고, 六堂의 新詩運動이나 李人植 이후의 新小說이 新文學의 성립에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더라도, 문학이라는 것이 좁게는 정치운동의 어떤 국면에서부터 넓게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지 못한 채, 단순히 몇몇 개인의 활동만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 人文大 助教(國文學專攻)

없는 일이다. 당시 韓末 사회의 모든 여건은 東學運動이라든가, 義兵活動이라든가, 또는 몇몇 지도적인 社會團體 및 學會들의 사회운동을 전체 국민 생활의 저변으로 확대시킬 만한 여유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개화기 문학의 성립 배경이 된 시대적 상황은 傳統性과 近代性의 混在狀態였으며, 조선시대 사회에서 모든 인간 행위의 共通的 價値로서 基準이 되었던 유교적 교리의 권위가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나, 거기서 야기되는 혼란상태를 극복해낼 만한 새로운 질서가 쉽사리 수립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결국 개화기의 문학이 근대적인 문학으로서의 바람직한 성장을 누리지 못한 것은 주로 밖으로부터 오는 세력으로 인한 知的인 충격을 자체 내에서 제대로 소화시킬 능력조차 준비하지 못했었다는 데에 가장 큰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화기 문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전제하고 당시 사회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西歐의 근대문학이라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근대화 과정과 병행하여 발전하였던 점을 상기하게 될 경우, 문제는 더욱 포괄적이고도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근대적인 과학의 발달, 부르조아 계급의 형성과 민주주의 이념의 대두, 특히 個人意識의 高揚 등이 서구사회에서 근대문학의 發生的 狀況을 이루었다는 사실¹⁾과 견주어 볼 때, 개화기 문학이 한국 近代文學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서가 필요한 것이다. 文學의 近代의 性格이라는 것이 삶의 구체적 인 모습을 그 전체성에서 가장 절실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요구라고 규정된다면, 개화기 문학이 지향하고 있던 정신세계는 그러한 성격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더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화기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한 신소설의 작가들은 文學 또는 小說이라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였다고 보다는, 당시 사회의 모든 국면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思想이면 무엇에든지 관심을 갖고 있던 광범위한 知識層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外來文物이 수용되고, 자본주의가 도래하기 시작한 韓末의 역사적 상황 한복판에 위치

1) 金禹昌, 韓國 現代小說의 形成, 「궁핍한 時代의 詩人」(民音社, 1977.) p. 80.

하여, 전통의 속박으로부터 갑작스런 해방감을 느끼면서 도덕의 진공지대에서 있었던 것이다.

본고의 대상인 安國善²⁾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일본 유학생 출신의 近代的인 知識人이었고, 그가 보여준 모든 행동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동기에 관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대부분 韓末의 사회적 성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학을 전공한 安國善은 그가 관여했던 정치, 경제, 사회 일반에 대한 많은 논설과 著作을 남기고 있으면서도 「禽獸會議錄」에 이어 『共進會』를 발표함으로써, 小說家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도 깊은 열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대부분의 논설들이 현실적인 측면을 직선적으로 비판하고 자기 경륜을 내세우기 위해 발표되었던 점과는 달리, 그의 소설은 현실을 상상력의 세계 속에서 재구성하고 있으면서도 그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만, 그가 지니고 있던 지식이 봉건적인 조선사회와 근대적인 서구의식의 충돌을 통해 얻어진 결과였던 것처럼, 그의 작품 역시 봉건 조선과 개화조선 둘 다 눈에 비추어주는 미묘한 경계선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安國善의 독특한 입장과 특이한 경로를 究明함으로써 개화기 문학 특히 新小說의 文學史的 性格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의도이다.

2

安國善은 1878년 12월 5일에 京畿道 安城郡 古三面 月香里 171番地에서 安稷壽(본관 竹山)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895년 17세 때에 당시 警務使의 요직에 있던 親日政客 安嗣壽³⁾의 주선으로 官費留學生으로 선발되어 일본에

2) 安國善에 대한 연구는 全光鏞교수의 「韓國小說發達史下」(韓國文化史大系 V)와 尹明求교수의 「安國善研究」(서울大碩士學位論文, 1973)가 대표적이다. 본고는 선행업적에 힘입은 바 크다.

3) 京畿道 安城郡 古三面에 비치된 除籍簿에 따르면, 安國善은 明治 44년(1911) 4월 14일 亡戶主 安嗣壽의 養子로 입적함과 동시에 戶主相續을 하였다. 安嗣壽와의 관계는 叔姪間이었던 것 같으나 확인할 수 없다.

진너갔으며, 그곳 慶應義塾 普通科에서 수학한 후에 東京專門學校에서 政治學을 전공하였다.⁴⁾ 그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곧 귀국하였지만 새로운 학문을 통하여 얻은 많은 지식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출구가 열려 있지 않았다. 특히 軍部大臣, 度支部大臣, 中樞院 一等議官 등의 요직을 거쳤던 安嗣壽가 소위 高宗의 양위 음모 사건⁵⁾에 연루되어 수배를 받다가 일본으로 망명한 직후였기 때문에 더욱 곤란을 받았던 것이다. 주로 정치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던 安國善은 이미 해산된 獨立協會의 간부였던 李承晚, 李商在, 俞星潁, 金貞植 등과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들과 함께 政治事件에 관련되어 체포되었으며, 감옥 속에서 培材學堂의 선교사 「아펜셀러」와 「벵커」 등의 권유에 따라 기독교로 개종하였다.⁶⁾ 참형을 선고받았던 안국선은 珍島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부인 李氏와 혼인하였으며, 이승만 등이 석방되던 1904년 무렵에 방면되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그때는 일본으로 망명하였던 安嗣壽가 일본 공사 하야시의 알선으로 귀국하였다가 체포되어 처형⁷⁾된 뒤였기 때문에, 여전히 安國善의 진로는 막연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는 한때 학교 강단에 서기도 하며, 사회적 기반이 넓어지자, 여러 학회에 관여하면서 많은 논설을 발표하였다. 1907년에는 「政治原論」, 「外交通議」, 「演說法方」 등의 책을 저술하였고 1908년 2월에는 「禽獸會議錄」을 발간하였다.

특히, 1907년에는 逆謀의 主動者로 처형되었던 安嗣壽의 伸冤이 이루어져

4) 安國善과 함께 安氏門中에서 일본 유학을 한 것으로 알려진 安昌善(尹明求 「安國善研究」 p. 13)의 履歷書(大韓帝國官員履歷書, 규장각소장)에는 이들이 開國 504年(1895) 5월 22일에 官費 日本留學生으로 피선되었으며, 그해 일본 慶應義塾에 입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安國善의 이력서는 찾아 볼 수 없다.

5) 1898년 前 警務使 金在豐, 中樞院議官 安嗣壽 등이 李浚鎔을 내세워 高宗의 양위를 음모했던 사건으로, 이 사건이 발각되어 安嗣壽는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었다. (大韓季年史 上卷 p. 207 참조)

6) 尹聲烈氏의 회고기인 「培材學堂」(中央日報,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1977. 3. 12)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安國善이 어떤 罪名으로 구속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7) 1900년 5월 17일 平理院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上奏의 기회도 주지 않고 당일 형을 집행하였다. (大韓季年史 下卷 p. 66 참조)

高宗이 직접 毅愍이라는 시호를 내렸으며⁸⁾ 安國善도 1908년 度支部의 관리
를 발탁되어 給六級俸의 度支部 書記官에 임명되었다.⁹⁾

관리생활에 발을 딛게 된 安國善은 그가 관여했던 社會團體와의 관계를 끊
어 버림으로써, 다시는 그의 힘있는 論說을 읽어볼 수 없게 되었으나, 官界
에서는 비교적 순탄한 승진이 이루어졌다. 당시 舊韓末官報를 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1908년 9월에 度支部 理財局 監督課長에 임명되었으며, 다음해
인 1909년 12월에는 理財局 國庫課長이 되어 實務의 요직을 맡았다. 그는
度支部의 관리로 1910년의 合邦을 맞았던 것이다.

合邦 후 朝鮮總督부가 설치되자, 그는 度支部의 관직을 떠나게 되었다.
1911년 2월에 경상북도 淸道郡守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그는
1913년 7월 사임할 때까지 약 2년반 동안을 근무하였으나, 免職의 이유는
알 수가 없다.

관직을 물러난 그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1915년 8월에 『共進會』를 발간하
였으며, 그 이듬해인 1916년에는 고향인 古三面으로 낙향하여 金鑛, 米豆,
株式 등에 손을 내면서 생활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
으며, 1920년에는 다시 상경하여 茶屋町에서 기거하였다. 長男인 必承(1930
年代 安懷南이란 필명으로 문단에서 활약한 小說家)과 次女 玉範 男妹를 거
느린 安國善의 家庭生活은 비교적 단란했으며, 특히 三代獨子로 태어난 必
承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였다. 末年의 서울생활은 순전히 必承의 교육을 위
한 배려였기 때문이다. 그는 基督教을 신봉하고 있었으므로, 必承을 예배당
에 데리고 다니며 洗禮까지 받게 하였고, 徽文學校에 진학시켜 공부하도록
하였다.¹⁰⁾ 그러나 安國善은 오랜 동안의 유형생활로 인한 刑苦와 過勞로 병
석에 눕게 되어, 1926년 7월 8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安國善의 나이 46세

8) 高宗純宗實錄, 下卷 p. 155

9) 安國善이 平議員으로 가입했던 大韓協會의 기관지 「大韓協會會報」 第五號
(1908. 8)에는 安國善이 任官하므로 平議員을 사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同會報 p. 58), 隆熙二年(1908) 七月 二十三日의 官報 '叙任及辭令' 란에 書
記官으로 임명한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10) 安懷南, 「先考遺事」(「博文」 3권 5집 1940. 6)

때의 일이었다, 長男 必承이 徽文學校 三學年에 재학 중인 때였다.

이상에서 훑어본 바와 같이 安國善의 生涯는 日本留學, 政治運動, 流配, 社會活動, 官界進出, 은퇴생활 등으로 연결되고 있으나, 크게 官界進出을 중심으로 前期와 後期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安國善이 어떤 경로로 獨立協會의 간부였던 이승만 이상재 등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政界進出이 좌절된 채, 오랜 동안의 유배생활(珍島)까지 겪어진 그는 合邦 직전에 다시 사회단체와 관계를 갖게 되었다. 1907년에 창설된 「大韓協會」에 副議員으로 가담하였으며, 「夜雷」 등의 잡지에 많은 논설을 발표하면서 1908년에는 「畿湖興學會」에도 관계하였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사회참여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인 행동의 계기를 잃어 버린 때에 대한 일종의 새로운 돌파구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직접 정치 현실에 참여하여 관직으로 진출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社會運動을 목표로 발족된 여러 단체, 學會, 저널리즘 등에 투신하여 開化運動에 앞장선 것이 대부분이었다. 安國善도 후자의 경우와 같이 관직에 나아가기 전에는 학회와 사회단체에 관여하여 社會運動에 가담하였으며, 여러 가지 활약상을 보여주었다.

그가 처음 가담한 「大韓協會」는 「一進會」와 대결했던 「大韓自強會」(1906~1907)가 해산되면서 그 조직을 고쳐 재출발한 민족적인 단체였다. 권동진, 남궁억, 오세창, 윤효정, 장지연, 홍필주 등의 발기에 의하여 구성된 이 단체는 教育의 보급, 産業의 개발, 行政制度의 개선, 官民 계급의 矯正, 權利·義務·責任·服從의 思想을 고취한다는 강령을 내세웠고, 특히 敎國의 길은 實力養成에 있고, 實力養成의 길은 정치·교육·산업을 講究發達케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協會 趣旨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大韓協會」를 비롯한 「西友學會」(1906), 「西北學會」(1908), 「湖南學會」(1907), 「畿湖興學會」(1908) 등도 모두 비슷한 취지에서 출발한 단체들로서, 그 창설에 가담한 회원들은 대부분 文明開化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던 지식인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들 단체의 활동은 당시 사회의 傳統改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부

분의 학회는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知識人 團體의 社會的 勢力化가 가능하게 되었고, 강렬한 사회적 발언도 행할 수 있었다. 특히 각 학회에서 발행한 會報, 學會誌는 開化朝鮮의 知的 生活에 새로운 국면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月報 또는 會報의 형식으로 간행된 學會誌는 文明開化, 自主獨立 등을 주장하는 論說과 新學問을 소개하는 글을 주로 실고 있었는데, 특히 '詞藻'란을 두어 會員들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會員 상호간의 친목도 도모하였다. 이러한 學會誌의 기사 내용은 個人的인 욕구불만을 피력한 것 이라기 보다는 개화기 朝鮮社會의 전반적인 욕구불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형성에도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들 학회지가 제공하는 각종의 논설들은 집권층을 향해서는 학회 회원들의 政治的 主張을 이 론화하여 발표할 수 있는 방법이였으며, 일반 독자들에게 대해서는 정치·사회·경제·문화·교육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의 공급자로서 각 분야에 있어서의 새로운 취향에 대한 안내 및 판단 기준의 제시라는 커다란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각 학회의 회원들이 지니고 있던 전체적인 사상과 가치의 공동소산으로서 발간된 학회지는 그 내용의 면에서 당시의 現實的 必要性을 충족시켜 주고 있었기 때문에, 회원들도 그들이 지니고 있던 信念과 價値觀을 일반 독자들에게 고취시키기 위해서 더욱 단합했던 점은 특기할 만하다.

安國善은 1907년 2월에 창간된 잡지 「夜雷」에 〈應用經濟〉(1호, 1907.2), 〈民元論〉(2호 1907.3), 〈國債와 經濟〉(3호 1907.4), 〈豐年不如凶年論〉(4호 1907.5), 〈組合의 必要〉(5호 1907.6) 등을 계속 발표한 후에, 그가 平議員으로 가담한 「大韓協會」의 기관지인 「大韓協會 會報」에도 〈民法과 商法〉(4호 1908.7), 〈會社의 種類〉("), 〈政治家〉(5호 1908.8), 〈古代政治學과 近代政治學〉(6호 1908.9), 〈政府의 性質〉(7~8호, 11~12호 연재) 등을 발표함으로써 政治學을 전공했던 그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1908년에 창설된 「畿湖興學會」에는 魚允迪, 金允植, 申有善 등과 함께 月報著述員으로서 직접 「畿湖興學會月報」의 편집에도 가담한 그는 〈政治學〉(2호 1908.

9), 〈古代의 政治學〉(4호, 1908.11) 등의 논설을 발표하였다.

安國善이 近代의인 西歐의 政治理論을 통하여 습득한 民主的인 정신은 그의 여러 논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民元論〉에서는 國家의 存立이 國民의 元氣에 달려 있고, 國民은 또한 國家의 主權을 유지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개한 다음, 이제 國家의 主權이 炭業難保하기 때문에 國民이 의지할 바가 없으며, 國民의 元氣 또한 微弱해진지 오래이기 때문에 國家主權 역시 공고해지지 못했다고 개탄하였다.

그는 政治家를 賢哲과 一致시켜서 政治家의 임무는 德行의 이상적인 표준에 적합한 국민을 양성함에 있다고 말하고, 平等의 개념에 따라 모든 국민은 누구나 그 국민의 가치에 비례하여 정치가의 지위에 설 權利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武斷政治의 手段을 사용한다든지, 權謀術數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政治家의 도리가 아니라고 역설하였다.

政府에 대한 그의 見解를 보면, 모든 정부는 통치자의 兵力에 의뢰하지 않고 그 백성들의 自由同意에 의거하여 움직일 때에만 올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으며, 국민 다수의 의사에 바탕을 둔 憲法이나 법률을 기초로 할 때, 政府의 統治力이 강화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安國善의 進步的인 견해는 당시 韓末의 狀況으로 보아 다분히 理想論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그의 社會的인 觀心은 격렬한 論旨의 「演說法方」을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高獸會議錄」에서는 現實에 대한 批判과 諷刺的인 의식이 우화적인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安國善의 社會活動을 통한 現實批判은 1908년을 고비로 하여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大韓協會」의 平議員도 任官과 함께 사임함으로써 사회단체와의 관계도 끊어버렸고, 일체의 논설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널리즘을 통한 그의 활약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당시 드물게 政治學을 전공한 安國善의 야심은 政治的인 進出에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일본 유학 직후 유배생활의 곤욕을 겪은 다음 政治的인 出口이 막히자 사회운동에 투신 하였는데, 바로 이 社會運動이 政界進出을 위한 기반이 되

었다.

「禽獸會議錄」과 「演說法方」의 저자로서, 근대적인 政治學의 이론을 바탕으로 現實批判에 앞장섰던 安國善이, 혼란된 정치상황 속에서 자신이 늘 공격했던 權力層에 접근해갔다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개화기 지식인의 정신적인 몰락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로서, 권력과 지식의 야합이라는 비판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좀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식인의 현실 참여라는 해석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官職을 사임한 후 발표한 『共進會』는 이러한 해석에서 前者의 경우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작품이었다. 이미 「禽獸會議錄」 등에서 보여주었던 비판적인 의식은 모두 거세되었고 현실적인 타협과 순응주의로 타락한 安國善의 作家意識의 변모를 잘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3

개화기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사회현상의 하나는 저널리즘의 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신문과 잡지의 발간은 近代化의 새로운 文化現象으로서, 대부분이 사회계몽이라는 經世의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다. 더구나 전문 분야로 독자적인 영역을 갖지 못하고 있던 文學이 저널리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신문 잡지의 등장은 新文學 形成의 중요한 기반을 이루었던 것이다.

安國善이, 일본 유학 이후 政界 進出이 좌절되고 오히려 政治事件에 관련되어 流配生活까지 겪게 된 후에 바로 이 저널리즘과 사회단체에 관계했던 것은 이미 상술한 바 있거니와, 그의 모든 활동은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한 사회활동과 결부시켜, 政治——저널리즘——文學이라는 三者의 관계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저널리즘에 투신함으로써 政界 進出의 새로운 출구를 열게 되었고, 官職 사임 후에 文學에 복귀하여 다시 저널리즘과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그의 사회활동은 1907년을 정점으로 하여,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演說法方」과 文學的인 측면에서는 「禽獸會議錄」으로 집약되고 있

는데, 文學활동으로 나아갈 것이냐 官職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기로에서 결국 자신의 전공과 연관되는 官界에의 진출을 택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그의 현실비판적인 사회활동은 政治적인 出口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고 만 것이다.

그렇지만, 「禽獸會議錄」이 지니고 있는 社會的 價値만은 그리 단순하게 규정될 수 없다. 한일합방 직전 言論에 대한 탄압정책으로 인하여 발간된 지 일년만에 판매금지 및 압수 처분까지 받은 이 작품은 安國善의 모든 활동 가운데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서, 문학의 형식을 통해 저항적인 의식을 표현한 개화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작품의 특성은 위기에 처해 있던 개화기의 시대적 상황을 작가인 安國善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통해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우리 민족이면 누구나 지닐 수 밖에 없었던 공통적인 理想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 공통의 관심을 寓話的인 手法으로 재구성하여, 연설의 형식을 빌어 더욱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禽獸會議錄」을 통하여 安國善이 보여준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은 주로 일본 유학을 통하여 얻은 신지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관료층에 속하던 양반계급 출신이었지만, 신교육의 결과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계층의 모순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반항적인 사상을 갖게 되었다. 「禽獸會議錄」이 담고 있는 비판적인 내용은 바로 이러한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安國善이 「禽獸會議錄」을 통하여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비판적인 안목으로 개성있게 확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文學作品으로서 「禽獸會議錄」이 지니고 있는 실질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첫째는 「禽獸會議錄」을 1907년에 발간한 「演說法方」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¹¹⁾. 「演說法方」은 연설의 방법을 해설해 놓은 입

11) 金允植, 김현, 「韓國文學史」(民音社, 1973)의 p.104에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 작품(금수회의록)은 앞에서 보인 「演說法方」

문서로서, 연설의 역사, 유명한 연설자, 연설의 준비와 연설자의 태도 등에 대하여 동서양의 명 연설문을 인용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놓은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의 말미에 〈青年 講習會의 연설〉 〈落心을 戒하는 연설〉 〈青年 구락부에서 하는 연설〉 〈政府 政策을 공격하는 연설〉 〈斷烟 연설〉 〈學徒를 권면하는 연설〉 〈婦人會에서 하는 연설〉 〈運動에 대한 연설〉 등의 실제 연설 예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연설문들은 安國善이 당시 현실 전반에 걸쳐 가지고 있던 핵심적인 사상을 피력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學會의 月報나 雜誌에 발표했던 論說보다 더욱 강렬한 對社會的 발언들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연설들이 寓話的인 世界속에 虛構化되어 실제 연설의 장면과 함께 나타난 것이 「禽獸會議錄」이라고 하겠다. 「禽獸會議錄」은 ‘나’라는 일인칭 관찰자(人間)가 인류를 논박하는 禽獸들의 회의(연설회)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물들이 연단에 나서서 행한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은 모두 연설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연설들에는 대부분 「演說法方」에서 예시되었던 연설문들과 비슷한 내용의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기법상의 측면에서 寓話的인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문학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동물들의 회의에서 연사로 등장한 가마귀, 여우, 개구리, 벌, 게, 파리, 호랑이, 원앙은 각각 〈反哺之孝〉 〈狐假虎威〉 〈井蛙語海〉 〈口蜜腹劍〉 〈無腸公子〉 〈營營之極〉 〈苛政猛於虎〉 〈變去變來〉라는 주제의 연설을 하게 되는데, 우화적 요소로 설정된 각 동물들은 그들이 행한 연설과 1대1의 논리적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화적인 대응관계가 성립되고 있다¹²⁾. 더구나 각각의 동물들이 지니고 있는 습성이 연설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추상적인 내용을 직접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것으로 인식시켜 주고 있어서, 전체 작품 내용의 풍자성이 더욱 강렬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禽獸會議錄」은 「演說法方」에서 安國善이 제기하고 있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寓話라는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 연설의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하겠다.

의 측면 혹은 통속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12) 拙稿, 「開化期小說의 文體研究」(現代文學研究 第14집, 1975) p. 45.

둘째는 「禽獸會議錄」에 전반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기독교 사상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安國善이 일본 유학에서 귀국한 직후 政治事件에 관련되어 투옥되었다가 거기서 선교사 아펜셀러 등의 도움으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거니와,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 사상은 신학문을 통해 얻은 近代的 知識과 함께 精神的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禽獸會議錄」은 사람의 책임을 의논하여 분명히 하며, 사람의 행위를 들어서 그 옳고 그름을 의논하며, 세상 사람 중에 인류의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 조사한다는 의도에 따라 인간을 공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作家인 安國善은 이 세 가지 문제의 모든 판단 기준을 주로 기독교적인 人間觀과 世界觀에 입각하여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이 아직도 사람을 사랑하신다니, 사람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구원 얻는 길이 있다 하였으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는 길이길이 생각하시오>라는 이 작품의 결론은, 가마귀처럼 효도할 줄도 모르고, 개구리처럼 분수도 지킬 줄 모르며, 여우보다 간사하고 호랑이보다 포악하며, 벌처럼 정직하지 못하고, 파리처럼 동포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창자없는 일은 계보다 심하며, 부정한 행실은 원앙새가 부끄러울 정도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그 영광을 나타내어 모든 생물로 하여금 인자한 은덕을 베풀어 영원한 행복을 받게 함이라고 전제한 다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天理正道를 지키고 착한 행실과 아름다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은혜를 배반하는 악종이 많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과 덕의심을 저버려 스스로 인류의 자격을 포기한 자가 많음을 통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安國善의 견해는 기독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내세운 啓示的인 眞理라고 할 수 있으며 해체되어 가는 전통사회 속에서 인간의 절대적인 중심과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당시의 실정으로 보아, 신앙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하는 종교정

신이 政治나 社會 등과 직결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특히 그 대상이 어디까지나 하나하나의 個人들이었기 때문에, 인간 구제의 범위를 사회 구제 또는 국가의 구원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시켜 나가기에는 많은 난점들이 수반되어 있었다. 安國善 자신도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통하여 거짓과 기만에 항거하는 격동기의 정열적인 리얼리스트로서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고, 또 다른 경우에는 정치학도다운 냉철함보다 오히려 그 感受性에 있어서만은 理想指向의인 낭만주의자로 변모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禽獸會議錄」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비판은 다분히 심정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며, 위기에 직면한 국가 민족의 확고한 방향 정립이라는 혁명적인 과제에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제는 「禽獸會議錄」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전통주의적인 입장과도 상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安國善은 전통적인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도덕 윤리마저도 무너져 버린 것을 개탄한 나머지 기독교적인 인간관에 입각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전통적인 도덕관과 윤리의식의 회복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反哺之孝〉에서의 부모에 대한 효도, 〈無腸公子〉에서의 지조와 절개, 〈營營之極〉에서의 형제 동포 간의 우애, 〈雙去雙來〉에서의 부부화목 등은 모두 혁신적인 이념이라기보다는 과거에서부터 존속되어 왔던, 전통적인 가치관이었다. 安國善은 인간생활의 도표로서 유용할 경우에는, 어디에서나 이러한 가치관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安國善의 태도는 그가 신교육을 받은 개화기의 근대적인 지식인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활기반이었던 전통사회의 윤리관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당시의 사회가 처하고 있던 목전의 문제들이 혁신적인 이념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웠으리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튼 安國善은 아직도 매몰되지 않은 전통사회의 장점으로서 忠, 孝, 義, 友愛 등의 윤리의식을 강조하였으며, 조선사회의 정신적인 타락을 이러한 장점들의 회복을 통하여 막아보려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과 함께, 「禽獸會議錄」은 그 양식의 측면에서 사건

과 결부된 이야기 형식으로서의 小說의 要件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시될 수 있다.¹³⁾ 이것은 敘事文學의 장르적인 속성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해 놓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지만, 주인공으로 등장한 동물들의 연설이 우화적인 형식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 작품 전체가 하나의 풍자로서 사회적 모순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은, 이 작품이 사회적 의미 이상으로 문학적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작품 형식은 김필수의 「경세종」(1908)에도 그대로 수용되고 있으나 사회의식은 비교적 약한 편이며, 李海朝의 「自由鍾」(1910)에서는 연설 형식이 토론의 방식으로 변모되어 민중 교화의 작가정신을 설득적으로 표현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4

『共進會』는 安國善이 淸道郡守를 사임하고 난 뒤에 서울의 자택에서 1915년에 발간한 作品集이다. 여기에는 「姣生」, 「人力車軍」, 「시골노인 이야기」라는 세 편의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다.

일제 총독부가 실시한 ‘物産共進會’(1915년 9월에 일제가 식민지 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술책으로 서울 경복궁에서 개최한 일종의 박람회)의 여흥을 돕기 위해 저술했다는 序文대로 『共進會』에 수록되어 있는 세 편의 작품들은 모두 흥미 위주의 오락성에 치중되어 있다. 세 편의 작품 이외에 「探偵巡查」와 「外國人の 話」가 실릴 예정이었으나 경무총장의 명령에 의해서 삭제하였다는 後記가 있긴 하지만, 그 작품들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런데 『共進會』에는 安國善이 소설가로서 지니고 있는 문학에 대한 관심이 집약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중요시할 수 있다. 「禽獸會議錄」에서와는 달리, 이 책에는 <이 책 보는 사람에게 주는 글(贈讀者文)>과 <이 책

13) 趙東一, 「新小說의 文學史的 性格」(韓國文化研究所, 1973)에서는 敘述文學로 설명되었고, 尹明求, 「安國善研究」에서는 寓話小說, 政治小說의 양면으로 설명되었다.

본 사람에게 주는 글〉 이 책머리와 말미에 붙어 있으며, 이 두 글에서 安國善은 자신의 文學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기뻐하며 노여워 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등의 人情에서 찾고 있으며, 이러한 人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다움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 슬픔, 노여움, 즐거움 속에서 人間歷史가 성립되며, 이 여러 가지 형편을 재료로 삼아 소설을 쓰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람은 것거움과 즐거움과 사랑과 욕심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노여워하며 미워하며 겁내는 중간에서 꿈작거리리는 동물이라. 그러함으로 사회 이면(社會裏面)에는 이상야릇한 별별 사정이 많이 생기어나는도다. 이 책을 기록한 이 사람도 국량이 넓지 못하고 지식이 많지 못하여 회·로·애·락·애·오·욕·경의 여덟 가지 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 여덟 가지 정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이 여덟 가지 정에서 꿈작거리리는 세상 사람 사이에 생기어 나는 모든 사정을 관찰하여 이 책에 기록하여 이 여덟 가지 정을 가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한 것인즉, 이 책에 기록한 모든 사실은 것거워하며 노여워하며 슬퍼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미워하며 욕심내며 겁냄으로 생겨 일어난 사정이라.……이 책 읽은 여러 군자는 책 속에 기록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자기 자기 마음을 비추어 붙저이다.〈이 책 본 사람에게 주는 글〉

그는 소설이 人情으로 엮어진 人間歷史의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정을 보고 기록한다는 소박한 模寫論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여흥을 돕기 위한 도구로 소설을 생각함으로써 소설의 기능을 흥미주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安國善의 소설관은 초기 신소설의 형성단계에서 팽배하였던 공리적인 소설관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감제와 모범을 보여주는 실상의 기록을 중시했던 소설에 대한 태도와 상당한 거리를 갖게 되었다.¹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학관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共進會』는 「禽獸會醜錄」이 보여주던 社會的인 理念에서 떠나 있으며, 安國善 자신도 현실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개혁론자에서 단순한 관찰자 내지 방관자로 전락되고

14) 拙稿, 「開化期の 小説觀과 新小説의 變貌樣相」(冠嶽語文研究, 제1집, 1976) 참조.

말았다. 물론 당시의 언론 탄압이 비판적인 논조를 용납하지 않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禽獸會議錄」과 『共進會』의 거리는 安國善의 현실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변모되고 있음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共進會』에 수록된 세 편의 소설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의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일이다. 우선 작가인 安國善이 항상 독자를 고려에 넣고 일상생활에서 문제시될 수 있는 개인적 사정을 찾아내려고 하였기 때문에, 디테일의 창작면에서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작가 자신의 기분이나 어떤 관념에 독자를 예측시키려 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험적인 실제 현실과의 경쟁을 애초부터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설이 지닐 수 있는 허구적인 세계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세 편의 소설들은 모두 당시의 사회 풍조에 작가의 소설적 입장을 그대로 맞추어 놓고 있어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작가의 동조라는 더 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말하자면, 여론의 형성보다는 여론의 순응을 강요하던 일제의 식민지 정책 속에서 패배하고 있는 작가의식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共進會』의 세 작품에는 이질적인 서구문물의 수입과 함께 붕괴되기 시작한 전통사회의 혼란상이 공통적인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다. 소설 「姦生」의 경우를 보면, <외국의 문명을 수입하여 내지의 문명을 발달케 하는 때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사치라 하는 풍속이라. 교화의 아름다운 풍속은 별로 들어오지 않고 사치하는 풍속은 속히 들어오나니>하여, 자못 비판적인 안목으로 당시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喬雲介>와 <최유만>은 비판적인 논조로 설정해 놓은 배경과 아무런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男女相逢이라는 통속적인 주제가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동경으로 건너가 사오 년을 지내면서 일본인처럼 <喬雲介子>라는 이름으로 행세했던 <喬雲介>와, 온갖 고난을 겪다가 이등대좌라는 일본인의 도움으로 청도에서 살고 있던 <최유만>의 우연성에 의한 결합은, 이 소설의 촛점이 되는 것이지만 설득력을 잃고 있다. 두 주인공이 모두 단 하나의 정열에 지배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분히 현실 순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두 남녀 주인공이 겪는 모든 고난은 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연유된 것처럼 그려지고 있으나, 그들의 결합은 일본인들의 도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설정된 점에 작가 安國善의 의도적인 수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安國善은 「妓生」의 서두에서 시대적 혼란과 무질서를 비난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주적 역량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 질서에 순응하는 인간상을 그려놓고 있을 뿐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人力車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시 양반 출신이었으나 가세가 타락하여 할 수 없이 남의 집 행랑채를 얻어두고 병문에 나가서 지게벌이도 하며 남의 심부름도 하여 하루 벌어다가 겨우 연명하는 주인공 〈김서방〉은 자신의 몰락을 스스로 구제할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경우에도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보다 체념이 앞서 있고, 우연한 횡재를 얻은 뒤에 항상 총독정치의 공명함을 감사한다는 내용에서 친일적인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주인공의 태도에 安國善이 동조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칼한 일이다. 「禽獸會議錄」에서, 남의 나라를 위협하여 속국도 만들고 보호국도 만드는 강대국들의 횡포를 불한당에 비유하여 논박했던 그의 비판적인 의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엄청난 모순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골 노인 이야기」에서도 동학운동과 의병의 난리가 다분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려지고 있다. 돈많은 부자라는 소문 하나로 동학당에게 붙잡혀가서 재산을 다 빼앗긴 채 겨우 목숨만을 건진 〈유승지〉를 등장시켜 동학의 무리를 비난하게 한다든지, 의병난리의 진압에 공을 세우는 〈김용필〉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이 그러한 요소에 속하는 것들이다. 물론 「시골 노인 이야기」의 줄거리는 〈김용필〉과 〈박명희〉의 결합 과정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건 구성은 흥미를 위한 스토리의 전개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 소설의 내용 속에 부분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의병이나 동학도들의 활동에 대한 비난은 주로 그들의 무모한 행동으로 야기된 일시적인 혼란에 집중되어 있으며, 작가 安國善은 그 속에 내재한 민

중들의 자주 의지와 민족적인 의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혼란이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질서화되고 있는 상황을 은연중에 합리화시키면서, 그러한 통제질서를 공명정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共進會』의 작품 내용은 결국 安國善이 지니고 있던 作家意識의 변질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적인 형식의 면에서 『共進會』에 수록된 작품들이 근대적인 단편 소설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¹⁵⁾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현실과 문학세계를 넘나들던 개화기의 한 지식인의 정신적인 몰락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5

安國善을 개화기의 근대적인 知識人이라고 할 경우, 그 의미는 ‘知性’이라는 말과 구별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知識이란 知性的 차원에서 더 높은 倫理的인 가치로 승화될 수 있으나, 단순하게 한낱 지식인의 기능적인 역할만을 담당할 수도 있다. 知性的 이념적인 활동 무대가 현실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래의 문제에 귀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순한 의미의 知識은 당장의 현실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게 된다. 그러므로 知性은 때때로 탄압받는 反時代的 존재로서 唾罵되는 수가 있지만 知識은 어용이라는 변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安國善은 개화기의 지식인에 해당한다. 그는 사회적인 출발에서부터 자신의 출생기반이었던 상층계급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에 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은 그의 사상적인 변모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정치적인 진출의 좌절에서 그의 현실 비판이 시작되었고, 현실비판적인 사회활동이 결과적으로 官職에의 길을 마련해 주게 되자, 비판의식은 거세되고 말았던 것이다.

安國善은 度支部의 書記官이라는 行政의 實務官吏로서 官界에 진출하면서

15) 李在鈺, 「韓國開化期小說研究」(一潮閣, 1972) p. 271.

점차 자신이 공격하던 權力層의 비합리적인 행위를 무조건 지지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경우 그는 權力層의 요구대로 손발을 같이 움직이며 충직한 관리로 일하든가, 아니면 이들 權力層과 결별하고 한 사람의 비판적이고도 독립적인 지식인의 위치로 되돌아 가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前者의 길을 택하였으며, 정치의 現實적인 與件에 순응하면서 내외의 압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결국 그는 비판의 의지를 저버린 평범한 관리로 변모하고 말았다.

이처럼 지식인이 스스로의 자율성을 포기하고 권력층에 의해서 부과되는 압박감을 받아 들이고 또한 스스로의 어떤 自律權도 확보하지 않을 때 그는 이미 지식인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전문가에 불과한 것이다. 상관에 의해서 부과된 문제만을 처리하는 한날 官公吏로서, 安國善은 韓日合邦을 맞이하였으며, 총독부관리로 여전히 관직을 떠나지 않았다. 정치학을 전공한 그에게는 「禽獸會議錄」을 통해 보여준 현실 비판이나, 많은 論說에서 제시했던 理想的인 제안보다도 오히려 정치에의 참여라는 현실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하게 작용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의 새로운 지식은 현실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지성의 차원으로 승화되지 못하였으며, 결국 그 자신마저도 관료로서의 생활에 안주하여 현실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安國善이 官職生活을 전후하여 발표한 「禽獸會議錄」과 『共進會』는 작가 의식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安國善의 변모를 잘 반영하여 주고 있다.

「禽獸會議錄」에서의 安國善은 모순된 사회 현실을 철저하게 규탄하는 비판론자였으며, 준엄한 심판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기독교적 인간관을 내세우고 인간 윤리의 회복을 부르짖는 이상론자였다. 그러나 『共進會』의 경우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작가 安國善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는 나약한 방관자로서, 또는 패배주의에 빠져버린 현실 순응주의자로 변모한 것이다. 일제의 혹독한 탄압을, 오히려 한말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해낸 통치 질서의 미덕으로 수긍하고 있는 安國善의 정신적 몰락은, 『共進會』에 수록된 세 편의 소설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